

# 어린이 눈높이 포교 앞날 밝다

### 동원불교교사대학등 개원 '의미와 과제'

### 아동심리·놀이 등 현장교육 중시 교사 적극활용·연구지원에 관심 필요

어린이 지도교사 양성을 전담할 교육기관과 과정이 연이어 개설돼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인력에 의한 새싹보리 포교 전망을 밝혀주고 있다.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회장 정여)가 1일 개원한 동원불교교사대학은 1년 동안 '아동심리' '아동 다루는 법' '감정통제와 나 전달법' '포교방법론' '비교종교학' '불교미술' '불교의식' '사찰습의' '만들기' 등 아동교육에 초점을 맞춘 교육 과정을 개설해 놓고 연간 80~1백명의 어린이 지도교사를 배출한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법회가 열리고 있는 사찰 현장에서 40시간의 수업을 받고 24시간 연습하는 등 전례없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조계종 포교원의 포교사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받는다.

불교어린이지도자회(회장 법현)는 9월22일부터 12월말까지 불교어린이지도자 전문지도자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어린이법회 운영에 필요한 법회 진행법과 프로그램 개발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이 과정에서는 '모임의 진행' '발표회 연

출법' '심성개발' '레크레이션' '종이접기' 등이 교육된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 및 과정을 이수한 지도교사들이 실 자리는 여전히 희박하다. 이들의 일터가 될 사찰에서는 '아이가 법당에 들어서면 어수선해진다' '관음재일에는 어린이 법회는 당연히 야외에서 진행해야 한다' '어린이법회는 스님이나 대학생이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등 어린이법회와 교육받은 지도교사를 기피 현상이 적지 않다. 어떤 사찰이든지 어린이 포교는 가장 뒷전에 놓인 불사며, 지속적인 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1만2천여 사찰 중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지도교사가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6백여 사찰에 불과하며, 지도교사 1명이 30~40여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계에서 최적 교육집단으로 아동 15명을 꼽고 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박정임사

무국장은 "대학생이나 청년회 회원,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이 교사를 맡는 상황에서 어린이 포교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며 "각 종단에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과정 개설에 관심을 갖고 교육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찰에서는 교육받은 지도교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법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종단에서는 지도교사의 자격을 검증할 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찰에서는 이들에게 어린이법회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어린이법회 운영을 위한 지도교사 교육은 매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조계종포교사단, 천태종, 불교어린이지도자포교회, 선재연구모임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지도자 연수에만 의존해온 실정이다. 연수단 단기 재교육과

정일 뿐이다. 각 교구 성당에서 '어린이 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계에서는 '어린이 전도회' 등 교단 차원의 지도교사 양성기관을 상시 운영하며 교육 이수자에게 교사자격증 발급해주고, 각 교구 성당에 파견하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개원된 것은 어린이지도자 양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교사상을 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각 종단에서 지도교사들의 자격을 검증해 줄 수 있는 행정적 제도를 마련하고, 본·말사연수교육 등을 통해 지도교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포교 일선의 지적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 지난 1일 부산 양정초소년회관에서는 정여스님(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장), 정관스님(불국토 이사장), 성오스님(범어사 주지)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동원불교교사대학 제1회 입학식이 열렸다.

## '포교사 인턴제' 도입 시급

### '포교사 배출·관리' 토론회서 주장

포교사 고시만으론  
자질 검증 한계  
분야별 재교육 필요

턴포교사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인턴제를 시행하면 △활동분야(어린이 청소년 군 교도소 장애인 등)를 자연스럽게 정해 전문적인 포교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포교사들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훈련된 양질의 포교사 배출 등의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분야별 포교사팀은 29개팀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전문포교팀 구성과 확립이 새로운 과제라고 덧붙였다.

하영태 포교사(담마간대 대표)는 유마힐포교인 사건을 예로 들며 일부 포교사의 잘못된 행위로 전체 포교사는 물론 종단의 도덕성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배출된 포교사의 재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조계종포교원은 종단에 등록된 불교 양대학 졸업자에 한해 포교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포교사 배출 제도를 개선하기는 했다. 그러나 배출 이후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대책이 없어 포교사 자격증을 내걸고 비불교적 상행위를 하는 등 폐해가 발생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최근 터진 부산 유마힐포교인 치사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문제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포교사의 배출·관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포교원과 포교사단 사무국이 함께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인턴포교사제와 활동분야별 위크숍을 통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포교사 배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문병진 포교사(문예진흥원 근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포교사고시로는 포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교사고시 합격 후 6개월~1년의 기간 동안 전문포교사팀에 합류시켜 현장 활동경험을 쌓게 한 후 포교사에 임용하는 '인



건국 50주년 기념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경찰청 경승(警僧) 기원대법회'가 8일 서울 경찰청사 내에서 진행됐다. 11등을 맞은 경승단 창립 이래 처음으로 중앙경찰기관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경찰 전원과 서울 34개 경찰서 경승 40여명 등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것. 이날 법회를 주관한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에게 이번 행사의 의미와 향후 경승활동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경승 기원법회를 경찰청에서 열게 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MF 경제국면에 접어들면서 지

## 수요 인터뷰

### 나라와 국민위한 경승 기원법회 연 경찰청 경승실장 자우스님

"범죄없는 사회가 불국토"를 걸치고 있어 불교의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포교가 활성화 되려면 범종단적으로는 포교지침서와 포교프로그램 등의 지원, 각 지역의 사찰과 불자들은 후원인이 되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 이번 법회를 계기로 또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가장 잘 해야 할 자라듯 경찰도 중앙의 경승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중앙 경찰기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전국 2백51개 경찰서에 경승 활동 경찰서는 1백20개서, 경승실이 있는 곳은 69개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경승활동은 경승들이 재정에서부터 법회운영까지 모든 분야를 자급자족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 타종교의 경우는 활발한 활동을

북한 문화재 대량 밀반입 사건은 누가 뭐래도 탐욕의 소산이다. 따라서 불법과외와 뇌물등 온갖 탐욕이 넘실대는 우리사회에 정화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를 던졌다.

1백여원대의 북한 문화재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한국 고미술협회 회장 부회장은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북한에서 밀반출된 문화재가 일본이나 홍콩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돈벌이'와는 정반 무관한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

"연루된 사람을 다 잡아들이자면 글씨부터 줄줄이 걸려들 겁니다."

## 북 문화재의 수난

북한 문화재 대량 유출사건은 많은 이들이 연관된다. 북한의 도굴꾼과 중국의 거간꾼을 제외 하더라도 우리의 골동상과 세관원, 골지의 민간미술관, 개인 수집가들이 동업중생으로 엮여있다. 돈을 벌고 소중한 문화재를 내가 소장하겠다는 탐욕앞에 민족의 얼과 역사 보존은 아랑곳 없다.

북한 문화재 밀반입은 공개된 비밀이다. 2~3년 사이 서울 인사동 고미술 거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설이 나올 정도다. 해외문화재 환수라는 미명아래 남한에서의 북한문화재

수요는 북한의 문화재 도굴을 부추긴다. 중국의 거간꾼들은 가짜를 만들어 한국의 팔각터와 고미술상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 도자기 한 점에 1억에서 10억을 호가하니 탐욕이 또다른 탐욕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물건은 못간다" 문화재 반출을 저지하는 김해공항 양행준 문화재 감경관과 같은 나라사랑도 있으나 탐욕을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북한문화재 무차별 도굴은 문화재 훼손뿐 아니라 우리민족의 얼과 역사의 수난이다.

뜻있는 이들은 격정한다. 북한문화재 통과장에는 많은 이들이 연관된다. 북한의 도굴꾼과 중국의 거간꾼을 제외 하더라도 우리의 골동상과 세관원, 골지의 민간미술관, 개인 수집가들이 동업중생으로 엮여있다. 돈을 벌고 소중한 문화재를 내가 소장하겠다는 탐욕앞에 민족의 얼과 역사 보존은 아랑곳 없다.

북한 문화재 밀반입은 공개된 비밀이다. 2~3년 사이 서울 인사동 고미술 거래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설이 나올 정도다. 해외문화재 환수라는 미명아래 남한에서의 북한문화재



◇ 포교사의 배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인턴제 도입과 재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6월에 열린 제1회 전국 포교사 워크숍.

했다면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하 포교사는 2천3백여명의 조계종 포교사를 포교사단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는 어렵다며 교구부사 포교국과 연계된 포교사지단의 강화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교원과 포교사단 사무국은 이날 토론 내용을 토대로 포교사 배출 및 관리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곧 포교사 관리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 실/직/자/녀/돕/기

# 성각스님 선사화 특별초대전

**초대의 말씀**

운해청천(雲海蒼天) 자연속에 기거하면서 일도정진(一日精進) 수도하는 몸으로 매일 만나는 도처의 부처와 불심을 화쪽에 담아 세상에 내어놓는 저의 선사화(禪書畫)가 전국 각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MF실직자이 그 가족을 위로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닿을 수 있다는 말씀에 새삼 놀라운 부처님의 보시품을 깨닫습니다.

심리만상을 채우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 하나에도 제 각각의 연유와 사연이 있듯이 지금은 비록 어려운 삶이지만

모두가 같은 불성(佛性)을 가졌다고 보면 비단 이 일만은 신승(山僧)홀로 나설 일이 아니라 같은 하늘, 같은 땅, 같은 시대의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할 일임을 함성으로 천하하니 부디 오셔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무야미타불 관세음보살

망운산 망운암 주지 박성각 합장  
국제신문 사장 남상조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원장 홍윤식

· 연 제 : 1998년 9월 10일~15일  
· 어디서 : 국제신문 문화센터 제 1전시실(4층)  
· 몇시에 : 오후 2시(14:00)  
· 문의 : 국제신문 (051)500-5114  
망운암 (0594) 63-3095

**큰스님 초청법회**

**9월 10일 오후 2시**

**국제신문 4층 대강당**

■ 주최 : 국제신문사 ■ 주관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후원 : 부산시 교육청,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MBC문화방송, PSB부산방송, KBS부산방송총국, SBS서울방송, BBS불교부산방송, 불교TV, 부산불교선교회, 불교계각언론사